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Jeff Struecker, a U.S. Army Ranger,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with a subtle smile.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jeff
struecker cru⁺

방탄 믿음

JEFF STRUECKER
U.S. ARMY RANGER HALL OF FAME



방탄 믿음

책과 영화로 유명해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사건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제가 육군 모병관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군에서 가장 강인한 부대와 보직이 무엇인가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공수부대 레인저(Airborne Ranger)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목표

군에 입대했을 때 저에겐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받은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인 'Operation Just Cause'와 그 이후 쿠웨이트 작전인 'Operation Desert Storm'에서 저는 총에 맞는 등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이 모든 것이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바뀌었습니다. 유엔은 당시 이 동아프리카 국가의 굶주린 국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는 여러 군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유엔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군벌인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Mohamed Farrah Aidid)는 유엔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유엔 관계자들에게 매복과 살인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습격에서 그는 파키스탄인 24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신체를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인 "Task Force Ranger"의 목표는 아이디드를 체포하고 그의 핵심 인물들을 데려와 파키스탄인들의 죽음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10월 3일과 4일의 마지막 임무에 앞서 Task Force Ranger는 여섯 번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 호크 다운(Black Hawk Down)으로 불리는 일곱 번째 임무에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후송대

24살의 분대장이었던 저는 9명의 부대원들을 험비 두 대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1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지상 후송대를 이끌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후송대의 임무는 헬리콥터에서 목표 건물 옥상과 주변 골목에 추락한 수색대원들과 특수부대원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포로들을 우리 기지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작전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Black Hawk 헬리콥터를 타고 있던 수색대원 토드 블랙번(Todd Blackburn)이 밧줄을 놓쳐 70피트(20미터)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먼저 부딪혔고 위생병은 즉각적인 특수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가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표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관이 전화를 걸어 저에게 토드를 공항에 있는 우리 기지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험비에 싣고 차량 두 대와 함께 비행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가디슈는 약 7*2마일 크기로 소말리아 전역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그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필라의 죽음

우리가 비행장으로 향하는 하울와디그(Hawlwadig) 도로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것은 마치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옥상과 출입구, 창문에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어를 위해 차량 양쪽에 수색대원들을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기관총 사수인 도미닉 필라(Dominik Pilla) 병장이 제 뒤에 앉아 험비 오른쪽에 있는 적들을 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빗발치는 적의 총알과 수류탄을 뚫고 전진하던 와중에, 적 한 명이 도미닉에게 AK-47 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필라는 이마에 총을 맞고 수색대원 팀 모이니한(Tim Moynihan)의 무릎에 쓰러지며 절명했습니다.

Tim은 공황상태에 빠지며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트루커 병장님, 도미닉 필라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가 맞았어요! 그가 죽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차량 뒷면 전체가 필라의 피로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험비에 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가 모이니한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팀, 도미닉을 대신해서 오른쪽에 있는 적들을 모두 제거해. 자네가 우리 살려야 해" 였습니다. 저희는 비행장으로 돌아왔고, 저는 '주님, 제가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다

의사들이 토드 블랙번의 시신을 꺼내고 필라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을 때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Black Hawk 헬기가 격추당했다.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라."

저는 속으로 그곳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대원들을 탄약과 연료의 추가 요청을 위해 보낸 후, 저는 차량에 묻은 도미니크 필라의 피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내가 오늘 밤 죽겠구나.' 저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 상황에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았고, 천국에서 우렁찬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갯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맘속에 떠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 순간 저는 13살에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부터 알고 있던 무언가를 자각했습니다. 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살든 죽든, 저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굳건히 붙잡혀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제 아내인 Dawn이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는 아내를 볼 수도, 아이를 안아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기독교인으로서 죽더라도 영원한 거처인 천국에서 구세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집에 가는 것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4:26-29*

사라진 두려움

그 순간부터 저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든 죽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제 병사들 중 더 이상 한 명이라도 죽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짐을 싣고 있는 와중에 제 병사들 중 한 명인 브래드 토마스(Brad Thomas)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장님, 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집에 아내와 가족이 있어요. 저는 못 나가요. 저는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가 무서운 거 알아. 나도 무서워. 우리 모두 두려워. 사실 자네가 두렵지 않다면 심리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브래드, 겁이 난다고 해서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영웅과 겁쟁이의 차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네. 자네를 가도록 만들 순 없지만, 난 자네가 필요해."

저는 그를 내버려두고 제 차에 탔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브래드가 무기를 집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임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초소를 지날 때, 저는 제 가슴이 자긍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두번째로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적들은 모든 교차로마다 도로를 막고 타이어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피트(3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무기와 유탄 발사기를 발사 해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 대원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는 한 무리의 수색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차량은 심하게 총격을 받았습니다. 몇 명은 죽었고 다른 대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차량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 차량에 태워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안전해. 우리는 모두를 구출 했어! 우린 괜찮아!'

또 다시 돌아가다

기지로 복귀 후 지휘관이 우리 병력의 절반이 아직 도시에 남아있다고 말했고, 세 번째로 우리를 그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기에,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군에게 탱크와 장갑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파키스탄 탱크 두 대와 말레이시아 장갑차를 포함한 큰 규모의 후송대가 모였습니다. 저는 적들이 장갑차와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탱크가 주요 도로를 따라 내려오자마자 모든 소말리아 무기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2시간 동안 호송대는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대원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내 험비는 마지막 탱크를 따라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탱크가 우리보다 먼저 떠난다고?' 나는 기관총 사수 브래드 폴슨(Brad Paulson)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갈 테니, 기관총을 뒤로 향하게 두게.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적군이니까." 약 1마일을 운전하고 있을 때 브래드가 "병장님, 우리 뒤에서 도로를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15명의 미군 병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좌우의 적들을 향해 총을 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5명의 병사를 도시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제 앞차량에 타고 있던 소대장과 저는 후송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후진하여 병사들을 싣고 보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스타디움(집결지)에서 본 것들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총알이나 피가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함께 복무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말리아에 가기 훨씬 전부터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고, 제 신앙을 그들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10월 4일, 전투로 단련된 강인한 수색대원들이 저에게 눈물 젖은 눈으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여야 하잖아요. 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길 허락하죠? 방금 죽은 제 친구 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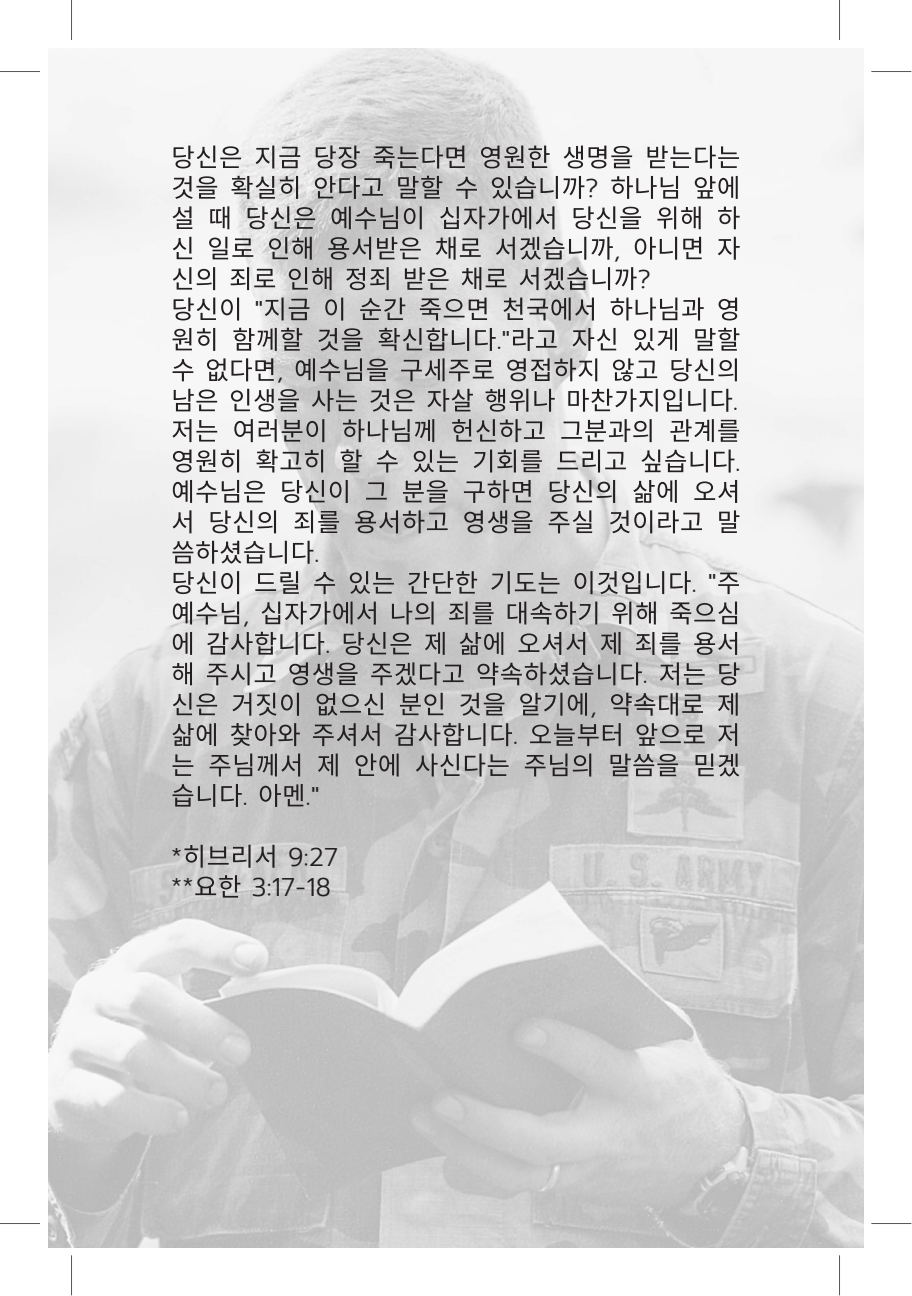
응답

저는 그러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답은” 저는 말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당신이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고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대신 죽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종래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완전한 결과,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죄의 값을 치루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A man in a U.S. Army uniform is shown from the chest up, holding an open book and reading.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light. The text is overlaid on the upper part of the image.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용서받은 채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 정죄 받은 채로 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영원히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 분을 구하면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간단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삶에 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 것을 알기에, 약속대로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27

**요한 3:17-18

편지하세요

당신이 그 기도를 드렸다면, 저에게 편지하세요.
P.O. Box 1451 Fortson, Georgia, 31808

WWW.BPFAITH.COM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도움이 될
중요한 자료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Bullet Proof Faith © 2023 Cru. All rights reserved. Personal non-commercial ministry copies permitted. Originally printed in English as Bullet Proof Faith © 2002, 2013, 2023 Cru. For more information: <http://www.bpfaith.com/>



WWW.BPFAITH.COM

방탄 믿음

jeff
struecker cru

“

예수님을 당신
의 구세주로 구
하지 않고 여생
을 보내는 것은
자살입니다.

WWW.JEFFSTRUECKER.COM

RANGER
RANGER